

2026
06.25

주간 제479호

중국 창업

WEEKLY 뉴스
CHINA 창업
KIC 뉴스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

문의 | +86.10.6780.8840 | info@kicchina.org

CONTENTS

WEEKLY 뉴스

'반도체의 혈액' 전자특수가스 수요 급증에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상승	1
첫 AI 월드컵, 승패는 못 맞췄지만 경쟁의 판도는 달라져	2
실리콘 기반 양자칩 핵심 소재, 초순도 실리콘-28 대량 생산 성공	3

CHINA 창업

[산업분석] 중국 AI 신약개발, 기술 혁신에서 임상 적용으로의 도약	6
[산업분석] 국가 최상위 정책에 포함된 '6대 네트워크'란?	10
[기업분석] 청두 첨단의학센터	15
[지역분석] 지린성 옌지 하이테크산업구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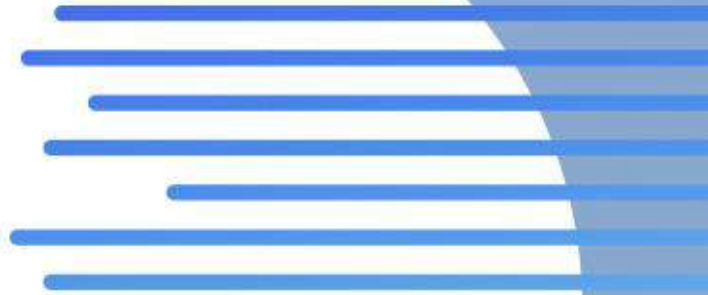
KIC 뉴스

[행사공고] 2026 GDEC "글로벌디지털경제대회-한중디지털의료혁신협력포럼"	24
[행사공고] 2026 WAIC 세계인공지능대회	25
'2026 한국 혁신기업 청두행-기업 로드쇼 K-Demo Day' 개최	26
KIC중국, 한국 혁신기업 대표단과 청두 산업 시찰 및 교류 행사 진행	32

행사 정보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36
------------------	----

WEEKLY 뉴스



- | | |
|--|---|
| '반도체의 혈액' 전자특수가스 수요 급증에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상승 | 1 |
| 첫 AI 월드컵, 승패는 못 맞췄지만 경쟁의 판도는 달라져 | 2 |
| 실리콘 기반 양자칩 핵심 소재, 초순도 실리콘-28 대량 생산 성공 | 3 |



'반도체의 혈액' 전자특수가스 수요 급증에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상승

AI 산업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AI 칩과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특수가스도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순도 99.99% 이상의 전자특수가스는 '반도체의 혈액'으로 불릴 만큼 전자화학 소재의 핵심 원료로 꼽힌다. 강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주요 제품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하이 푸둥신구(浦东新区)의 한 특수가스 물류기업에서는 방호복을 착용한 작업자들이 100여 종에 달하는 전자 특수가스를 규정에 따라 하역하고, 검수한 뒤 창고에 입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올해 들어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의 운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배송 일정이 거의 포화상태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자 특수가스 생산업체들도 주문이 급증하면서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자특수가스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시장에 진출하는 신규 기업들도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육불화텅스텐(WF₆)은 메모리 반도체와 첨단 로직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증착 소재다. 최근 해외 생산능력 축소와 메모리 반도체 증설이 맞물리면서 수급 불균형이 더욱 커졌고, 가격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헬륨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상하이의 한 전자특수가스 기업 생산부 장즈쥘(张志军) 부경리는 "반도체 업계의 헬륨 수요가 매우 커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현재 일일 생산량은 연초의 두 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2교대로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자 특수가스의 업황 호조는 자본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올해 들어 A주 전자 특수가스 관련 종목이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찬터치(中船特气), 허위안가스(和远气体), 하오화과기(昊华科技), 야커과기(雅克科技) 등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윈드(Wind) 산업가스지수도 올해 들어 40% 이상 상승했다. 업계는 2025년 이후 중국전자특수가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업황 호조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AI 칩이 첨단 공정으로 고도화되면서 제조 공정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특수

가스에는 더 높은 순도와 다양한 제품군,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진홍가스(金宏气体)의 천잉(陈莹) 이사회 사무국 책임자는 "전자특수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생산 중인 제품이 모두 폐기될 수 있다"며, "주요 기업들이 첨단 신소재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구체 소재는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등 전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로, 현재 다수의 전자특수가스 상장사가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전자특수가스의 국산화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부가가치 시장에서도 성장 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의 전자특수가스 제품 인증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생산업체가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인증 진행 속도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자특수가스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출처: 신량망)

첫 AI 월드컵, 승패는 못 맞췄지만 경쟁의 판도는 달라져

2026년 6월 16일 열린 FIFA 월드컵 H조 1차전에서는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이 연출됐다. 카보베르데가 축구 강국 스페인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둔 것이다. 40세 골키퍼 보지냐는 스페인의 27차례 슈팅을 상대로 7개의 결정적인 선방을 펼치며 경기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하루 전에는 인구 15만 명에 불과한 퀴라소가 월드컵 본선 역사상 첫 득점을 기록했다. 축구 변방 국가들의 선전은 이번 월드컵을 그 어느 때보다 경쟁적인 무대로 만들고 있다.

한편, 경기장 밖에서는 AI 기술의 확산이 이번 대회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FIFA 공식 기술 파트너인 레노버(联想)는 이번 대회 48개 참가국에 'FIFA AI Pro 월드컵 AI 슈퍼 에이전트'를 제공했다. 이 플랫폼은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호출해 2,000개 이상의 경기 지표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이틀 정도 걸리던 경기 후 분석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해, 감독과 분석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플랫폼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약 40개 팀이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분석 인력이 부족한 국가대표팀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팀은 경기 직후 상대 전술과 자국 경기력을 놓고 10차례 이상 추가 질의를 이어가며 분석을 진행했다. 심판진도 판정과 경기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일부 강팀만 누릴 수 있었던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역량이 보다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AI가 이변을 막지는 못했지만, 더 많은 팀이 세계 정상급 구단에 버금가는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술이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면서 축구계의 경쟁 구도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카보베르데가 스페인을 상대로 이변을 연출한 경기에서 AI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이다. 레노버와 미구비디오(咪咕视频)가 진행한 '월드컵 AI 예측, 인간 대 AI 대결'에서 12개 AI 모델 가운데 11개가 스페인의 승리를 예상했으며, 예상 스코어도 대부분 3대0 또는 4대0에 집중됐다. 제웨(阶跃) 모델만 카보베르데의 5대1 승리를 예측했다. AI 모델들은 전부 승패가 갈리고 득점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나며 모든 예측을 빗나갔다. 반면 약 25만 명의 축구 팬 가운데 5.4%는 무승부를 선택해 AI보다 더 높은 적중률을 기록했다.

이 대목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AI는 경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더 많은 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고 있다.

퀴라소의 월드컵 사상 첫 골부터 카보베르데의 무승부까지, 이번 월드컵은 기술이 승패를 예측하는 도구를 넘어, 모든 팀이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데이터 분석 역량이 소수의 강팀에서 모든 참가팀으로 확산되면서, 이번 'AI 월드컵'은 스포츠와 AI의 결합이 갖는 또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AI의 가치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팀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있다.

(출처: 신량망)

실리콘 기반 양자칩 핵심 소재, 초순도 실리콘-28 대량 생산 성공

6월 15일 중국핵공업그룹(CNNC, 中核集团)은 실리콘 기반 양자칩의 핵심 소재인 존재비99.99% 이상의 실리콘-28(Silicon-28) 동위원소 양산에 최초 성공했으며, 제품의 핵심 지표가 글로벌 선진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실리콘은 자연 상태에서 실리콘-28, 실리콘-29, 실리콘-30 등 세 가지 안정 동위원소로 존재한다. 이 가운데 실리콘-28은 원자핵의 스핀이 0에 수렴하여 양자컴퓨팅 과정에서 외부 잡음의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실리콘 기반 양자칩을 제작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소재로 꼽힌다.

초순도 실리콘-28을 확보하려면 미세한 동위원소 차이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물론, 이를 효율적으로 분리 및 농축해야 한다. 원료 정제부터 동위원소 분리와 농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은 물리

학과 공학 기술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난도 과정이다.

그동안 안정 동위원소 제조 기술은 기술 장벽이 매우 높아, 초순도 실리콘-28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는 중국의 양자기술과 첨단 반도체, 첨단 의료장비 등 핵심 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성과는 중국핵공업그룹 산하 중국원자능공업공사 소속 핵공업이화학연구원원이 이뤄냈다. 이번 기술 개발은 중국이 자립적이고 효율적인 안정 동위원소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리콘 기반 양자컴퓨팅 핵심 소재의 독자적인 개발을 비롯, 첨단 반도체 공정, 첨단 항법, 측정표준 등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 동위원소는 첨단 과학기술 연구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초 소재로, 핵의학 영상, 정밀 방사선 치료, 핵물질 추적, 환경 추적, 기초물리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핵공업이화학연구원원은 앞으로 실리콘-28에 이어 원자력과 핵의학, 항공우주, 양자 정보, 입자물리, 심우주 탐사 등 분야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안정 동위원소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출처: 중궈커지망)

참고자료

- ◆ 신량망(新浪网). '반도체의 혈액' 전자특수가스 수요 급증에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상승
<https://finance.sina.com.cn/roll/2026-06-16/doc-inicqaac4575171.shtml>
- ◆ 신량망(新浪网). 첫 AI 월드컵, 승패는 못 맞췄지만 경쟁의 판도는 달라져
<https://finance.sina.com.cn/tech/shenji/2026-06-16/doc-inicpzzw9573904.shtml>
- ◆ 중궈커지망(中国科技网). 실리콘 기반 양자칩 핵심 소재, 초순도 실리콘-28 대량 생산 성공
https://www.stdaily.com/web/gdxw/2026-06/15/content_532320.html

CHINA 창업



[산업분석] 중국 AI 신약개발, 기술 혁신에서 임상 적용으로의 도약	6
[산업분석] 국가 최상위 정책에 포함된 '6 대 네트워크'란?	10
[기업분석] 청두 첨단의학센터	15
[지역분석] 지린성 옌지 하이테크산업구	20



[산업분석] 중국 AI 신약개발, 기술 혁신에서 임상 적용으로의 도약

AI 신약개발이 개념 검증 단계를 넘어 임상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징타이커지(晶泰科技)는 6월 12일 상하이 장강(张江)에서 AI 기반 신약개발 서밋을 개최했다. 동 행사에는 과학자와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신약개발의 실제 임상 가치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이는 중국 AI 신약개발 산업이 알고리즘 개발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임상 성과 창출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AI가 신약개발의 '인프라'로, 글로벌 제약사들 전략 전환

업계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릴리(Eli Lilly & Co.)는 전체 개발 파이프라인의 75% 이상에 AI를 도입했으며, 미국 FDA 역시 규제 체계에 AI를 반영하며, 신약개발의 핵심 도구로 인정하고 있다. AI는 더 이상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표적 발굴부터 임상 개발까지 전 과정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마젠(马健) 징타이커지 공동창업자 겸 CEO는 "AI 신약개발의 산업화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AI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신약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개별 기술 혁신에서 연구개발 전 과정의 혁신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신약개발이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연구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규모 산업화와 실제 임상 환경에서의 검증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 18C 규정에 따라 상장한 첫 전문 기술기업인 징타이커지는 2025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하면서 'AI for Science' 분야 최초 흑자를 달성한 홍콩 상장사로 거듭났다. 이는 그동안 투자 부담이 큰 분야로 인식됐던 AI 신약개발 산업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AI가 설계하고 로봇이 24시간 실험하는 신약개발

장페이위(张佩宇) 징타이커지 최고과학책임자(CSO)는 '자율 신약 발굴 시스템'을 소개하며 AI 신약개발이 실제로 이뤄지는 과정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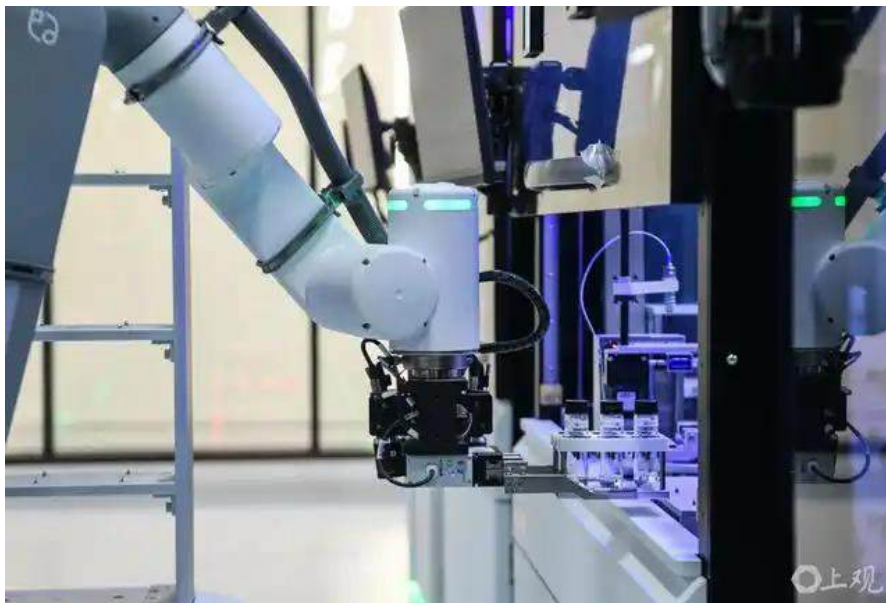
기존 신약개발은 연구자의 경험과 반복적인 실험을 중심으로 진행돼 개발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실패율도 높았다.

반면 징타이커지 연구소에는 약 300대의 AI 로봇 실험 워크스테이션이 24시간 무인으로 가동되며, 드라이랩과 웨트랩을 결합한 연구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드라이랩에서는 AI 모델이 컴퓨터에서 후보 물질을 예측 및 선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웨트랩에서는 로봇이 실험을 자동으로 수행해 결과를 검증한 뒤 데이터를 다시 AI에 학습시킨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시스템은 스스로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이터 플라이휠'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기존 방식 보다 실험 수행 효율을 8배, 데이터 수집 효율을 40배 높였다. 장페이위 최고과학책임자는 자연어로 연구 목표를 입력하면 AI 에이전트가 연구개발 절차를 생성해 실험 장비에 명령을 내리고, 자동화 실험 시스템이 이를 수행한 뒤 AI 에이전트가 필요한 도구를 활용해 결과를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내부 검증을 거쳤으며, 분자 합성의 효율과 성공률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체계는 AI의 지휘 아래 로봇이 지치지 않고 반복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개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국 AI 신약개발 분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



신약개발을 넘어 생태계와 가치 창출로

임상 현장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징타이커지가 육성한 시거생명과학(希格生科)의 미만성 위암 표적치료제는 임상 2상에 진입했으며, '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갈렌상 후보에 올랐다. 또 다른 협력사인 즈칭생명과학(智擎生技)의 유전자 표적 기반 혁신 신약도 환자 모집을 완료했다.

이들 사례는 AI의 가치가 연구개발 과정의 효율화를 넘어, 실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우페이란(周斐然) 징타이커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중국 제약 기업이 단순한 비용 경쟁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 가치를 인정받는 혁신 자산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징타이커지는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와 4억 달러 이상의 협력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는 하버드대 교수가 설립한 신약개발 기업과 약 60억 달러 규모의 협력 계약을 맺었다. 이는 중국 AI 신약개발의 핵심 기술력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산업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업 생태계 협력과 공동 가치 창출'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AI가 10년에 이르던 신약개발 기간을 몇 년 수준으로 줄이고 성공률을 몇 퍼센트포인트만 높여도 신약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징타이커지는 앞으로도 개방형 생태계를 기반으로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AI·로봇 기반 연구개발 인프라를 토대로 신약개발 과정의 난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중국 AI 신약개발이 기술 혁신을 넘어 실제 임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참고자료

- ◆ 신랑차이징(新浪财经). 산업화 가속! 중국 AI 신약개발, 기술 혁신에서 임상 적용으로의 도약
<https://baijiahao.baidu.com/s?id=1867828581103883744&wfr=spider&for=pc>

[산업분석] 국가 최상위 정책에 포함된 '6대 네트워크'란?

4월 28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中共中央政治局会议)에서는 수자원망, 차세대 전력망, 연산망, 차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 배관망, 물류망 등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 2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리차오(李超) 대변인은 관련 계획과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건설 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연도별 목표를 세분화하는 한편, '착공사업-사전준비사업-예비사업-신규기획사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추진 체계를 정비해 실제 사업 집행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6대 네트워크'를 비롯해 종합 입체교통망, 저고도 인프라, 'AI+' 인프라,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인프라, 소비 인프라 등 5대 분야는 모두 투자 확대 가능성이 크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단기적으로는 내수 잠재력을 끌어내고 투자 확대와 경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과 산업 고도화를 촉진해 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 안전 보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6대 네트워크'를 포함한 각종 인프라는 각각 독립적인 네트워크로 기능할 뿐 아니라, 다중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현대적 인프라 체계의 공간 배치를 최적화하고 통합 및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1+1>2'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수자원망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자원망을 구축해 가장 많은 인구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국토의 80.3%를 커버하고 있으며, 전국 약 9만 5,000개의 저수지와 댐의 총저수용량은 1조m³를 넘어섰고, 국가 수자원망의 핵심 간선망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남수북조(南水北调·남부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북부 지역으로 보내는 프로젝트) 동선(东线) 및 중선(中线) 1단계 사업은 현재까지 880억m³ 이상의 물을 공급하며 1억 9,500만 명에게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했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수자원망 투자 규모가 6조 위안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도 관개시설 개보수와 주요 도수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가 잇달아 착공됐다. 또한 징항(京杭)대운하, 용딩허(永定河), 시랴오허(西辽河)는 전 구간에서 물길이 연결될 예정이다. 남수북조 중선의 '인장부한(引江补

한·양쯔강 물을 한강으로 끌어오는 보완 사업' 프로젝트는 대부분 마무리되고, 동선 2단계 사업도 속도를 내면서 '남북을 연결하고 동서를 상호 보완하는 수자원 체계'가 빠르게 구축될 전망이다.



차세대 전력망

중국은 기간 전력망과 배전망을 기반으로, 스마트 마이크로그리드를 보완축으로 하는 '송전망-배전망-마이크로그리드' 연계형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고 있다.

초고압(UHV) 송전망의 총연장은 5만km 이상에 달하며, 2025년 전체 전력 소비량은 처음으로 10조kWh를 넘어섰다.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도 18억kW를 넘어섰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전력망 투자 규모는 5조 위안을 넘어설 전망이다. 초고압 직류 송전망은 15개 노선으로 확대되고, 서전동송(西电东送·서부 지역의 전력을 동부 경제 발달 지역으로 수송하는 공정) 송전 용량은 4억 2,000만kW 이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또한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은 9억kW까지 확대되며, 4,000만 기 이상의 충전 인프라를 지원해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효율적으로 송전 및 활용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산망

2026년 3월 말 기준 중국의 지능형(AI) 컴퓨팅 규모는 188만P에 달했으며, 70개 이상의 연산망 핵심 통로를 구축했다.

또한 8대 허브 노드 간 지연시간을 20ms 이내로 낮췄다. 일평균 토큰 호출량은 140조 개를 넘어 2년 전보다 1,000배 이상 증가했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동수서산(东数西算·동부 지역의 연산 수요를 서부의 데이터센터로 분산하는 국가 프로젝트)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층 구조의 연산 인프라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신망과 전력망을 기반으로, 통합 관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삼아 지역과 산업 간 장벽을 허물고 연산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차세대 통신망

중국은 5G 기지국 500만 개 이상을 구축했으며, 5G-A 서비스는 330개 도시를 커버하고 있다. 광케이블 총연장은 7,499만km에 달해 관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더블 기가비트'에서 '더블 10기가'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5G-A 기지국 50만 개를 구축하고, 6G는 2030년 이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신 효율과 연결 성능을 10배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천 개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해 우주·항공·지상·해양을 아우르는 통합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7조 위안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와 저고도 경제, 체화지능 등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도시 지하 배관망

중국의 지하 배관망 총연장은 약 390만km로 세계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상수도관은 약 119만 9,000km, 도시가스 배관은 약 104만km, 지역난방 배관은 약 54만 6,200km, 하수관은 약 99만 3,600km에 달한다.

일부 지하 배관망은 시설 현황 관리 미흡과 노후화, 관리 체계의 분절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약 5조 위안을 추가 투자해 77만km 규모의 지하 배관망을 구축 및 개보수하고, 도시의 안전성과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편 배관망의 스마트화와 안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물류망

중국에서는 초당 최대 8,437개의 택배가 접수되고, 하루 평균 1억6,000만t의 화물이 운송된다. 종합 화물 운송량과 항만 물동량, 택배 처리량은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5년에는 사회 물류비용의 GDP 대비 비중이 10년 전 14.9%에서 13.9%로 낮아졌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종합 입체교통망의 핵심 간선망을 95%까지 완성하고, 복합운송과 콜드체인, 특송, 대량화물 물류 등 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해 물류비의 GDP 대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참고자료

- ◆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6대 네트워크'의 조화로운 구축과 역동적인 발전
https://www.gov.cn/lianbo/202605/content_7070126.htm
- ◆ 양스신원(央视新闻). 국가 최상위 정책에 포함된 '6대 네트워크'란?
<https://mp.weixin.qq.com/s/F6deA21xY0Yg9rXKNn8AqQ>

[기업분석] 청두 첨단의학센터

전략적 포지셔닝 및 발전 배경

청두(成都) 첨단의학센터는 청두 하이테크산업구 내 신촨(新川) 혁신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청두(成都)·충칭(重庆) 지역 경제권의 바이오의약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이자 혁신의 발원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 센터는 청두 하이테크산업구의 탄탄한 산업 기반과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바탕으로, 중개의학을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임상 적용을 핵심 가치로 삼아 'PI(책임연구자)-IP(지식재산권)-IPO(기업공개)'로 이어지는 혁신 성과 사업화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첨단의학센터는 청두 하이테크산업구가 조성 중인 텐푸진청(天府锦城)실험실의 핵심 거점으로서, 미래 바이오의약 산업의 발전 방향을 선도하고 생명·건강 분야의 원천기술 혁신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입지 경쟁력 및 산업 기반

청두 하이테크산업구는 중국 최초의 국가급 하이테크산업구 가운데 하나로, 전국 178개 국가급 하이테크산업구 중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24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3,490억 3,000만 위안을 기록했으며, 세계 500대 기업 127개와 상장기업 57개가 입주해 있다. 또한 첨단기술 보세구의 수출입 규모는 전국 동일 유형 개발구 가운데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개발구 내 바이오산업은 전국 211개 바이오산업단지 가운데 종합 경쟁력 4위에 올라 있으며, 상장기업 및 상장예비기업 10개를 육성했다. 캉늬야(康诺亚, Keymedbio), 웨이신바이오(微芯生物, CHIPSCREEN), GE 헬스케어(GE医疗) 등은 중국 및 세계 최초의 혁신 신약과 의료기기를 잇달아 개발했다.



첨단의학센터는 신촨혁신과학기술단지(新川创新科技园) 내 바이오의약 클러스터에 위치해 있으며, 샹류(双流) 국제공항에서는 차로 약 30분, 톈푸(天府)국제공항에서는 약 40분 거리에 있다. 지하철 6호선 신촨루역(新川路站)과 인접해 있고, 주변에는 동서축 3개와 남북축 4개 간선도로로 구성된 '3횡 4종(三横四纵)' 입체 교통망이 구축돼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동 센터는 완만한 구릉 지형을 따라 조성됐으며, 자연 경관을 건축 설계에 녹여내 자연과 첨단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구현됐다.

3개 단지가 연계된 전주기 혁신 플랫폼 구축

청두 첨단의학센터는 총 부지 약 32만 5,000㎡, 연면적 약 120만㎡ 규모로 3단계에 걸쳐 조성된다. 각 단지는 차별화된 기능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기초연구부터 산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1단계: 산학협력 기반 기술사업화 시범단지

1단계 단지는 부지 약 11만 1,000㎡, 연면적 29만㎡ 규모로 조성됐으며,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72개 기업과 40여 개 연구 플랫폼이 입주해 있다. 단지는 첨단의학, 정밀의료, 스마트 헬스케어, 메디컬뷰티를 중점 분야로 육성하고 있으며, 화시(华西) 희귀질환연구원, 질환시스템유전연구소 등 수준 높은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



또한 쓰촨성 세포은행, 화시 동물실험센터, 유해폐기물 이송시설, 이중 전력공급 시스템, 폐수처리시설 등 전문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식당과 카페, 피트니스센터, 호텔 등 생활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돼 연구와 업무, 생활,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했다.

■ 2단계: 'BT+IT' 융합산업 시범단지

2단계 단지는 약 9만㎡ 부지에 연면적 30만 3,200㎡ 규모로 조성됐으며, 2024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BT+IT(바이오기술+정보기술) 융합을 핵심으로 디지털 의료, AI+정밀의학, 의료 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다. 현재 단지에는 텐푸진청실험실(첨단의학센터), 베이징대학교 청두 첨단융합바이오기술연구원, 국가 정밀의료 산업혁신센터 등 최고 수준의 연구 플랫폼이 입주해 있다.

이 가운데 텐푸진청실험실은 징진지(京津冀), 장강삼각주(长三角), 다완구(大湾区)에 이어 청두(成都)·충칭(重庆) 지역 경제권에 조성되는 네 번째 국가급 바이오의약 실험실을 목표로 설립됐다. 악성종양과 심뇌혈관 및 대사성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중점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4명의 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계획 중인 연구시설 규모는 100만㎡에 이른다.



베이징대 청두 첨단 융합생명공학연구원은 정량 시스템생물학, 유전자 검사 및 편집, 화학생물학, 합성생물학 등을 중심으로 7개의 첨단 기술 플랫폼을 구축해 베이징대의 기술 역량과 청두의 산업 발전을 연계하고 있다. 단지에는 첨단의학 컨벤션센터와 사이언티스트 클럽도 마련돼 있다. 이 시설은 1,000명 규모의 국제회의와 로드쇼,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학술 교류와 산업 협력을 위한 첨단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 3단계: '더블 T(Double T)' 기반 미래산업 혁신 거점

3단계 사업(예정)은 약 15만4,000㎡ 부지에 연면적 약 65만㎡ 규모로 조성되며, 텐푸진청실험실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TECH+TOD를 결합한 '더블 T(Double T)' 산업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원천기술의 융합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기술 확보를 가로막는 난관을 해결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1차로 약 35만㎡ 규모 시설이 2026년 4분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주기 기업 지원 체계 및 산업 지원 정책

첨단의학센터는 기업 성장과 제품 개발의 전 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과학기술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창업 컨설팅과 기술금융, 인재 지원은 물론 연구개발,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3개 분야 14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와 함께 19개 분야 40개 공통 지원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정책

구분	내용
전문 기술 플랫폼	➢ 기업이 핵심 연구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할 경우, 프로젝트 투자액의 최대 30%까지 지원 ➢ 공급망 보완 및 강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선정된 경우, 신규 대외 서비스 실적의 최대 10% 범위에서 최대 3,000만 위안 지원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	➢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ITT)을 지원. 기업이 의료기관에 ITT를 의뢰할 경우, 외부 위탁 서비스에 투입된 연구개발 비용의 30%를 지원, 프로젝트당 최대 300만 위안, 기업당 최대 1,500만 지원 ➢ 기업이 독자적으로 신약 개발시 최고 1억 위안, 새로 도입한 신약 품종에 대해 최대 1,500만 위안 지원 ➢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장려, 인증 획득 기업에는 연간 연구개발 투자액의 최대 30%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위안을 지원 ➢ 기업이 메디컬뷰티 장비와 신형 메디컬뷰티 소재를 자체 개발하거나 신규 도입할 경우, 기업당 최대 200만 위안을 지원. 특수의료용도식품(FSMP)을 자체 개발하는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600만 위안을 지원

산업·도시 융합형 정주 환경

첨단의학센터가 위치한 신촨(新川)혁신과학기술단지(新川创新科技园)는 고급 주거단지와 인재 전용 아파트, 상업시설, 교육 시설, 휴식 공간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또한 신촨즈신(新川之心)공원과 커뮤니티센터 등을 중심으로 '생산은 효율적으로, 생활은 편리하게, 자연은 조화롭게' 어우러진 현대화 산업도시가 구성되어 있다. 단지는 완만한 구릉 지형을 활용해 자연경관을 건축 설계에 녹여냈으며, 자연과 첨단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를 통해 과학자와 기업인, 창업가들에게 연구와 사업,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 ◆ 펑파이망(澎湃网). 도시와 공존-청두첨단의학센터
https://m.thepaper.cn/baijiahao_29890253

[지역분석] 지린성 옌지 하이테크산업구

개요

■ 허가 일자

지린성 옌지 하이테크산업구는 2010년 설립

■ 주요 산업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현대 서비스업

■ 주요 지표

구분	2022년	2023년	성장률
등록 기업 수	778개	1,093개	40.49% ↑
수출 총액	2.36억 위안	2.59亿元	9.62% ↑
영업 수익	195.20억 위안	215.41억 위안	10.35% ↑
공업 총생산액	188.46억 위안	203.40억 위안	7.92% ↑

옌지(延吉) 하이테크산업구는 1993년 지린성 정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됐으며, 1995년 정식 출범했다. 이후 2010년 국무원 승인을 거쳐 국가급 하이테크산업구로 승격됐다.



현재 옌지 하이테크산업구는 담배·식품,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현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담배·식품 산업은 장백산(长白山) 일대의 풍부한 동식물 자원을 기반으로 산업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개발구 최초의 100억 위안 규모 산업으로 성장했다.

바이오의약 산업은 창바이산 약용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확대하고 의약 연구개발과 응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연지시의 주력 산업이자 핵심 세원으로 자리 잡았다.



의료기기 산업은 완성도 높은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헬스케어 산업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현대 서비스업은 서비스 아웃소싱과 애니메이션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등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며, 개발구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고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으로 산업 고도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개발구에는 82개 공업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담배·식품 제조와 의료기기 제조, 의약품 제조, 장비 제조가 주력 산업을 이루고 있다. 개발구에는 또한 국가급 첨단기술기업 28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26개, 성급 기업기술센터 5곳, 전정특신(专精特新) 기업 6개가 입주해 있다.

아울러 국가급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1곳과 성(省)급 창업보육기지 2곳, 성급 대학 과학기술단지 1곳, 성급 창업지원 공간 1곳, 성급 기술이전 시범기관 1곳이 조성돼 있다. 현재 인큐베이터에는 101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현재까지 36개 이상의 기업을 배출했고 3,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KIC 뉴스



[행사공고] 2026 GDEC "글로벌디지털경제대회-한중디지털의료혁신협력포럼"	24
[행사공고] 2026 WAIC 세계인공지능대회	25
'2026 한국 혁신기업 청두행-기업 로드쇼 K-Demo Day' 개최	26
KIC 중국, 한국 혁신기업 대표단과 청두 산업 시찰 및 교류 행사 진행	32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36



[행사공고] 2026 GDEC "글로벌디지털경제대회-한중디지털의료혁신협력포럼"

KIC 在华创新创业中心 sba 全球数字经济发展大会 2026 全球数字经济大会 全球数字经济发展大会

2026 全球数字经济大会 全球数字经济发展大会

한중디지털의료혁신협력포럼

GLOBAL DIGITAL ECONOMY CONFERENCE

시간 · 장소 TIME AND PLACE

🕒 행사 시간 2026.7.2 (목) 13:30 - 20:00

📍 행사 장소 北京国家会议中心 (C2, C3门) 310会场

글로벌디지털경제대회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국제적 공감과 협력을 증진하며 디지털 경제 영역의 운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행안으로 개최됩니다. 본 대회는 2026년 7월 2일부터 5일까지 베이징에서盛大하게 개최됩니다.

대회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한·중 디지털의료혁신협력포럼'도 같은 날 7월 2일 오후 13:30에 개최됩니다. 본 포럼은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서울경제진흥원(SBA), P4 Precision Medicine Innovation Centre Beijing, 초관촌클라우드컴퓨팅산업연맹이 공동 주관하며, 한국의 의료 혁신 기업이 현장에서 혁신적인 기술 성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AI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소마틱 의료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한·중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 교류의 장을 마련합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의료 기술의 보편화와 포용적 확산을 추구하고, 산업 및 연구와 자원 및 연계와 성과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참석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행사와 함께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행사 일정 ACTIVITY FLOW

13:30-14:00 리셉션

14:00-14:25 오픈팅 및 인사

14:25-14:55 기조강연

14:55-17:20 디지털의료 산업분야 기술 및 융합 로드쇼

NEAR Brain ECEN READYCURE BIOXONICS UXN AL+M JIC ARSLON RUDACURE

17:20-17:30 폐막식

18:00-20:00 교류만찬

주최 기관

글로벌디지털경제대회조직위원회

주관 기관

글로벌혁신센터 (KIC중국)
서울경제진흥원 (SBA)
P4 Precision Medicine Innovation Centre Beijing
중관촌클라우드컴퓨팅산업연맹

협력 기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한국연구재단
베이징경제기술개발연맹 (NICTO)
중관촌기업주관국 (서울) 서비스대표처
중관촌국제인큐베이터
중관촌의료기기단지

참가 신청

접수 마감일자: 2026.6.25

행사 장소 ACTIVITY PLACE

주소: 国家会议中心 C2,C3门 (No. 7 Tianchen East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혁신기업소개 INNOVATIVE ENTERPRISE PROFILE

NEAR Brain
뇌에 기반한 뇌 질환을 위한 AI 기반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2022년 설립 이후 포스트임플란트 시드 투자 유치,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력 및 보건복지부 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해 기술력을 갖추었다. 2024년 JLABS@Shanghai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25년 Jumpstarter TOP5 및 HSTP 1기 선정으로 제품 개발 및 글로벌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ECEN
(주)이센은 'Digital Healthcare through Motion'을 비전으로, 현재 기반 보행분석과 운동로지 기술을 결합해 의료 현장에 신바나 높은 신뢰가 확보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READYCURE
현재 미국에서는 CNT 기반 초소형 디지털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알츠하이머병 등 퇴행성 뇌 질환 진단을 위한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헬스케어 기업이다. 현재는 장비 설계, 제어 소프트웨어, 저전력 X선 치료기 연구 등을 기반으로 Helaxon 시리즈와 BSB 조영 기반 약물 전달 플랫폼 EPATA를 개발하고 있다.

BIOXONICS
바이오엑소닉스는 2020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기술을 총괄로 설립된 바이오센서 기업으로, 현재 한 번만 사용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센서 칩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기 신기술을 확보하였으며, 2026년 말까지 품목허가를 거쳐 병원과 건강관리센터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XN
유엑스엔은 2019년 국내 시장에 남다른 바이오센서 기술 기업으로, 나노프러스 기술을 기반으로 무효소 면역검출장치(CGMS)를 개발하고 있다. 세계 최초 무효소 전기화학 면역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치루부착형 및 창가침형 CGM 제품을 개발 중이며, 국내 최정밀성 시험 결과 승인을 받아 제품화 및 상용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PLCOSKIN
(주)플코스킨은 3D 프린팅과 생체적합 소재 기술을 결합한 첨단 재생의료기기 및 메디컬 센서 개발 전문 기업이다. 현재는 의사 처방 없이도 고밀도 정밀도로 생체적합 유방방사선 치료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임상 1차 시험을 통해 '이플코스'를 실제 의료 현장 적용을 본격화하고 있다.

ARSLON
AR 기술로 심근관색을 조기 발견하고, 불필요한 심장 수술을 줄여 진단율을 높이는 의료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12-lead ECG 기반 AI로 관상동맥 협착 eEF, 3D 위험을 예측하는 심정질환 스크리닝 솔루션 개발을 완료했다. 심정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RUDACURE
루다큐어는 장기간 지속된 신약을 개발하는 R&D 중심 기업으로, 신약 개발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통해 연구진, 임상, 병용 치료제 등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AL+M altmedical
알플러스메디칼은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높여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 중이다. 세계 최초로 alternative mitochondria pathway (대체 미토콘드리아) 기반 미토콘드리아 활성 물질을 확보했으며, 이는 과도한 자가포식을 유발하지 않고 정상화 수준에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높여준다. 본 기업은 알츠하이머병(AD), 파킨슨병(PD), 당뇨병성신장병(DKD), 항암치료로 인한 손상(CTPN), MELAS 등 미토콘드리아 질환 치료제 개발 및 선두기업이다.

참가 신청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www.kicchina.org
info@kicchina.org
(중) +86 010-6780-8840
(한) +82 010-4084-1234

[행사공고] 2026 WAIC 세계인공지능대회

KIC 글로벌혁신센터
CHINA Korea Innovation Center WAIC 2026 世界人工智能大会

2026 WAIC 세계인공지능대회

ADD 상하이 · 세계박람회전시관
(上海世博展览馆)

TIME 26년 7월 17일~7월 20일

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2026

대회 소개 :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AIC)는 글로벌 AI 선업을 선도하는 최고 권위의 행사로서, 세계 정상급 과학자, 기업가, 혁신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기술의 최전선과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금번 대회에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와 한중합본혁신센터가 최초로 '한중 혁신 AI관'을 공동주최로 운영합니다. KIC중국이 WAIC에 공식 파트너로서 첫선을 보이는 이번 행사는 전방위적인 기획 운영과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8개 대한민국 혁신 AI 기업을 한국 AI 전시관에 선정하였으며, 인공지능 분야의 최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한중 AI 혁신관은 한중 양국 간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교류와 산업 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며, 혁신 기술의 국경 간 매칭을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자원 연계와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 AI혁신 기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참관 안내
CONFERENCE GUIDE

QR코드를 스캔하시고, WAIC 공식 앱을 다운로드하여 입장권 구매 및 상세 일정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AIC)는 '컨퍼런스 · 포럼, 전시 · 시연, 시상 · 경연, 체험 · 실증, 혁신 인큐베이팅, 인재 유치' 6대 핵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상하이 세계박람회전시관, 장정과학회관, 서안국 제인벤션센터 등 3개 주요会場에서 동시 개최됩니다.

1. 세계박람회전시관 (주会場) — AI+융합, 인공지능 기술의 각 산업군별 혁신 적용 및 현장 실증에 집중
2. 장정과학회관 — 반도체 · 컴퓨팅 인프라 · 칩 설계 최신 기술 진흥 전시
3. 서안국제인벤션센터 — 소비자(B2C) 중심 응용, AI의 소비자 제품화 및 사용자 경험 혁신에 초점

한중혁신AI관은 세계박람회전시관(博成路850号) 내 H1-A218 부스에 위치하며, 귀하의 방문과 관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KIC중국 참가 기업

다이나믹솔루션

DYNAMIC SOLUTION

다이나믹솔루션은 디지털 · AI 제혁의로기기 기술을 기반으로 출몰하여, AI · 로보틱스 · 소재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 기술 기업으로 진화한 기업입니다. 핵심 사업은 크게 빅-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서비스 및 산업용 로보틱스 등이 있습니다. CES 혁신상,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등 다수의 수상 실적과 함께, BCI와 AI를 결합한 플랫폼을 산업 · 의료 전방으로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이아이웍스

AIWORKX

AIWORKX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AI · SW 검증 및 테스트 자동화 전문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영역은 크게 테스트 사업 분야와 AI 솔루션 개발 분야로 구성됩니다. 테스트 사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임베디드 시스템, AI · SW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검증 및 테스트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 솔루션 개발 분야에서는 산업 특화형 AI Agent와 AI 기반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블루바이저시스템즈

BLUEVISION

블루바이저시스템즈는 2016년 부산에 설립된 AI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실생활과 산업 현장의 구조적 비효율을 AI로 해결한다"는 비전 아래 ▲AI 인터뷰(하이버프 인터뷰) ▲AI 제테크(하이버프 제테크) ▲AI 로보어드바이저 3대 솔루션 라인업을 자체 개발 · 상용화했습니다. 자체 "HIGHBUFF AI 알고리즘"으로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을 검증받았습니다.

SECA

SECA

SECA는 하드웨어 설계 데이터의 정합성 오류 탐지 솔루션입니다. 회로도, BOM, 명세서, 스키트 등 형식과 위치가 흩어진 설계 데이터를 단일한 지식 체계로 구조화 · 연결하고, 그 위에서 AI Agent가 집의 · 검증 · 문서 작성 등 엔지니어의 비부가가치 업무를 자동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듭니다.

아슬론

ASLON

아슬론은 AI의로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의 핵심멤버로 구성되었고, 심장 질환의 조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의료 헬스케어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광상동맥 질환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이 제품의 해외 사업화를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놀로지

Hypernology

하이퍼놀로지는 "산업의 모든 과정을 AI로 연결하는 기업"을 비전으로, 제조 · 전자 · 반도체 · 식품 · 제약 · 물류 · 건설 · 공공 등 다양한 산업 현장의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합니다. 자체 통합 플랫폼 브랜드 HyperQ를 중심으로 품질검사, 로봇 자동화, 안전관리, 생산 · 공정관리, 문서업무, 원격 유지보수 등 산업 현장에 필요한 AI 기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뉴로클

NEUROCLE

뉴로클은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모델 학습-적용-유지보수를 아우르는 End-to-End 비전 소프트웨어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 산업 전반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아시아 · 유럽을 포함한 40개국 이상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스탑하우

StopHow

스탑하우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문서, 업무 시스템 데이터, 사내 지식 자산을 AI로 연결해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지식 플랫폼을 개발하는 엔터프라이즈 AI 기업입니다. 스탱하우는 설립 이후 AI 문서 처리, RAG 기반 검색 · 답변, 기업용 SaaS 운영 환경, 고객 PoC 수행 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이를 통해 단기간 내 제품을 실증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했습니다.



KIC중국의 다양한 행사 정보를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문의처 :
jiangwen@kicchina.org

'2026 한국 혁신기업 청두행-기업 로드쇼 K-Demo Day' 개최

2026년 6월 9일, KIC중국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노베이션, 중국 국가기술이전서남센터(国家技术转移西南中心), 청두하이테크산업구 등 한중 혁신기관과 함께 '2026 한국 혁신기업 청두행-기업 로드쇼 K-Demo Day'를 공동 개최했다.

쓰촨성(四川)은 중국 서부 지역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5년 양국이 <한중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장관급 양해각서(MOU)>(关于加强中韩科学技术合作的部长级谅解备忘录)를 체결한 이후 혁신 창업과 기술사업화, 산업 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특히 청두(成都)는 양국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대표하는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KIC중국은 수년간 '한국 혁신기업 청두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과 쓰촨성 지방정부, 산업단지, 연구기관, 투자기관, 선도기업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지원해 왔다. 프로그램은 현재 양국의 혁신 자원 연계와 과학기술 산업 협력을 대표하는 브랜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의 첨단기술 기업 12 개사가 참가해 기업 로드쇼를 진행하고 최첨단 기술과 혁신 성과를 선보였다. 아울러 바이오 의료와 첨단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여 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



행사 내용

■ 내빈 축하

자오민(赵敏) 쓰촨성 과학기술청 1급 순시원은 축사를 통해 "양측이 쓰촨에서 이번 행사를 공동 개최한 것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기업과 쓰촨성 과학기술 기업, 벤처투자기관, 산업단지 간 맞춤형 연계를 더욱 가속화하

고, 인공지능과 신소재 등 공통 관심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며, 한국의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가 쓰촨에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양측이 함께 더욱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원재(严元载) 주청두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는 "2026 한국 혁신기업 청두행 행사는 한중 혁신기업과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심화하고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밝히며, "청두는 중국 서부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거점으로, 인공지능과 바이오 의약, 로봇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보다 많은 실질적 협력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융차이(李永才) 청두하이테크산업구 관리위원회 2급 순시원은 축사에서 "청두하이테크산업구는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과학기술 혁신 중심지이자 산업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중 양국의 혁신기업, 연구기관, 산업 자원이 더욱 긴밀히 연결되기를 바라며, 중점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상호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문 KIC중국 센터장은 축사를 통해 KIC중국의 설립 배경과 그동안 추진해 온 한·중 과학기술 혁신 협력 성과를 소개하면서, "KIC중국은 한중 혁신 자원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왔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공지능, 바이오의약, 디지털경제, 첨단제조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이 한층 확대되고, 기술의 사업화와 산업 프로젝트가 더욱 활발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IC중국 영상 상영

행사 현장에서는 KIC중국 설립 10주년 기념 영상이 상영됐다. 영상에는 KIC중국이 한중 과학기술 혁신 협력과 혁신창업 교류, 기술 사업화, 국제 기술 협력 등을 추진하며 이뤄낸 주요 성과가 담겼다. 또한 지난 10년간 한중 혁신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양국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온 성과와 함께, 한중 과학기술 혁신 협력의 주요 플랫폼으로서 KIC중국이 수행해 온 역할도 소개했다.

MOU 체결식

행사 기간 KIC중국과 국가기술이전 서남센터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양 기관의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렸다.

양측은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협력, 기술사업화, 혁신창업 지원, 산업 자원 연계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한중 기술사업화, 혁신기업 육성, 글로벌 기술 협력, 산업 프로젝트 추진,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선정하고,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양국 혁신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과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지원하는 보다 효율적인 교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조강연

김상환 KIST 이노베이션 대표는 '한중 혁신창업: 가능성과 사례 연구(中韩创新创业: 可行性与案例研究)'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한중 양국은 과학기술 혁신 자원과 산업 공급망, 시장 수요 측면에서 높은 상호보완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창업 플랫폼 공동 구축,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우수한 기술의 해외 사업화와 산업 적용을 추진하고, 한중 과학기술 혁신 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기술 발표

기업 로드쇼 세션에서는 한국의 혁신기업 10개사(알트메디칼, 메가존, 레디큐어, 니어브레인, 트루픽셀, 고퍼소프트, 에이드올, 이엠에스, 젠셀메드, 크로스허브)가 의료기술, 스마트 디바이스, 디지털 기술, 첨단제조 등 미래 유망 분야의 기술을 발표했으며, 핵심 기술 경쟁력과 제품 활용 사례, 시장 진출 전략, 향후 발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바이오의약, 인공지능, 첨단제조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보유한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줬다.



기업 간 1:1 비즈니스 상담

기업 로드쇼가 끝난 후에는 참가 기업과 투자기관, 산업단지 관계자들이 기술 협력, 기술 사업화, 시장 확대, 산업 프로젝트 추진 등을 주제로 교류를 진행했다. 청두외상투자기업협회, 쓰촨화상(华享)발전 그룹, 쓰촨성혁신창업촉진회 등도 참여해 한국 혁신기업과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중국 측 기관과 기업들은 쓰촨성과 청두시의 산업 발전 환경과 지원 정책, 산업 자원 경쟁력을 소개하고, 시장 진출과 협력 파트너 발굴, 기술 사업화, 투·융자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한중 기업들은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시장 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며 향후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시사점

'2026 한국 혁신기업 청두행 및 기업 로드쇼 K-Demo Day' 행사는 한중 혁신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 산업 지원기관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과 바이오의약, 첨단제조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 기간 동안 한중 기관과 기업들은 기술혁신과 기술 사업화, 산업 협력, 시장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며 향후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앞으로도 KIC중국은 한중 과학기술 혁신 협력의 가교 역할을 이어가며 양국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산업단지, 혁신기업과 함께 기술 혁신을 위한 교류와 산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기술의 해외 사업화와 산업 현장 적용을 촉진하고, 한중 혁신 생태계의 융합과 과학기술 산업 협력의 확대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KIC중국, 한국 혁신기업 대표단과 청두 산업 시찰 및 교류 행사 진행

KIC중국은 지난 6월 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노베이션, 국가기술이전 서남센터, 청두(成都) 하이테크산업구 등과 함께 '2026 한국 혁신기업 청두행-기업 로드쇼 K-Demo Day'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의 우수 혁신기업 12개사가 참가해 청두 현지 기업 및 투자기관 40여 곳과 함께 바이오의약, 인공지능, 첨단제조, 신소재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KIC중국은 행사 이후 한국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시찰을 진행했다. 대표단은 청두의 주요 혁신 플랫폼과 선도기업, 전문 산업단지를 방문해 바이오의약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자정보, 뇌과학 등 분야의 발전 현황과 경쟁력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첨단 산업 현장 방문, 청두의 혁신 역량 확인

6월 9일 오후, 한국 혁신기업 대표단(바이오 분야)은 청두 첨단의학센터(前沿医学中心)를 방문했다. 청두 하이테크산업구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이 센터는 혁신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정밀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생명과학의 혁신 거점이다. 대표단은 연구개발 인프라와 기술사업화 체계, 산업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KIC중국은 청두 첨단의학센터와 함께 한중 기업인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청두 바이오의약산업단지와 투자기관, 금융기관,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 기업 대표단과 함께 청두 바이오의약 산업의 발전 현황과 기술사업화, 글로벌 시장 진출, 해외 투·융자, 의료기기 해외 진출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협력 사업 추진과 시장 확대 전략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 현장 방문 통해 혁신 자원 연계

한편 KIC중국은 청두 신형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함께 한국 혁신기업 대표단(제조 분야)을 대상으로 청두 BOE(京东方) 디스플레이 과기유한공사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스마트 제조 생산라인과 주요 제품을 둘러봤으며, 협회는 청두 광전자 산업의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를 소개하며 한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함께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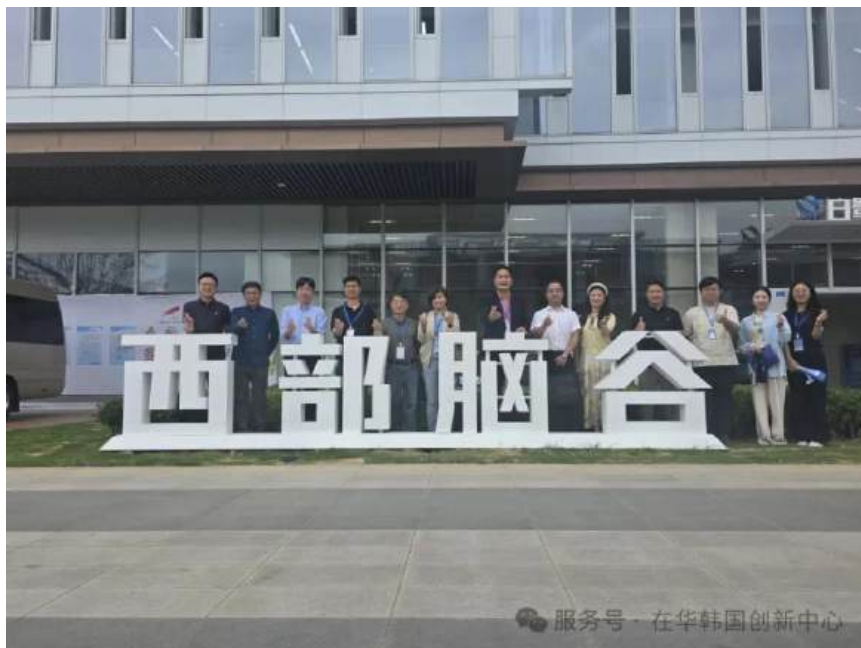
이어 대표단은 전자과기대학교 과학기술단지(天府园·텐푸위안)를 방문해 기업 육성, 기술이전, 글로벌 협력 분야의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대학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혁신 자원 공유 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청두 신형디스플레이산업협회 주관으로 한중 기업과 산업단지,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제조를 주제로 각 기관의 기술 경쟁력과

산업 수요를 공유하고, 산업 공급망 협력과 공동 연구개발, 시장 확대, 인재 교류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뇌과학 산업 자원 연계, 미래 협력 가능성 모색

6월 10일 오전, 대표단은 청두 진신(锦欣) 뇌신경전문병원과 중국 서부 브레인밸리(脑谷)를 차례로 방문했다. 진신뇌신경전문병원에서는 뇌질환 진료와 연구, 임상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병원 관계자들과 뇌질환 진단 기술과 의료 AI, 첨단 의료기기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어 대표단은 중국 서부 브레인밸리를 방문했다. 이곳은 청두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뇌과학 및 뇌 기반 인공지능 산업 클러스터로, 연구기관과 의료기관, 혁신기업이 집적돼 있으며, 산업 혁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표단은 뇌과학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의료·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방향,

글로벌 협력 기회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향후 기술 교류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 혁신 자원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KIC중국은 산업 시찰을 마친 뒤, 진장구(锦江区) 과학기술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한중 기업인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뇌과학과 의료·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의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 혁신기업과 직접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뇌과학 기술혁신과 의료·헬스케어 산업 발전, 의료 분야 AI 활용,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각 기관과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와 산업 전략, 시장 진출 현황 등을 함께 소개했다.



시사점

이번 산업 시찰은 바이오의약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자정보, 뇌과학 등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방문과 분야별 교류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청두의 산업 환경과 혁신 역량, 기술사업화 기반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가 기업들은 청두의 탄탄한 산업 기반과 활발한 혁신 생태계, 높은 시장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청두가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강력한 혁신의 활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KIC중국은 한중 과학기술 혁신 협력의 가교 역할을 이어가며 효율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의 우수한 혁신기술과 혁신기업을 중국 각 지역의 산업 수요와 긴밀히 연결하고, 기술사업화와 산업 협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중 과학기술 혁신 협력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명칭	기간	장소	분야
2026년 무인 항공기(UAV) 응용 및 제어 국제 컨퍼런스	2026.06.25-2026.06.27	베이징	인공지능
2026 중국 스마트 에너지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6.07.09-2026.07.11	청두	에너지
2026년 제11회 국제 신호 및 영상 처리 학회(ICSIP2026)	2026.07.17-2026.07.19	창저우	정보 기술
2026년 인공지능 및 정밀의료 국제 심포지엄(AIPHC)	2026.07.17-2026.07.19	청두	인공지능
제10회 국제 원격탐사 기술 및 응용 컨퍼런스(ICRSTA)	2026.07.17-2026.07.19	청두	정보 기술
제6회 국제 의약화학 및 신약 개발 심포지엄(MCDD)	2026.07.17-2026.07.19	청두	의료건강
제8회 기계 학습, 패턴 인식 및 지능형 시스템 국제 컨퍼런스(MLPRIS)	2026.07.17-2026.07.19	청두	인공지능
2026년 가상현실 연구 및 응용 국제 심포지엄(VRRA)	2026.07.17-2026.07.19	청두	인공지능
제9회 지능형 로봇 및 제어 공학 국제 학술 대회(IRCE2026)	2026.08.03-2026.08.06	우루무치	인공지능
제2회 스마트 전망 및 지속가능 에너지 국제 컨퍼런스(SGSE2026)	2026.08.03-2026.08.05	란저우	에너지
2026 중국 자동차 내외장 지능형 및 혁신 컨퍼런스	2026.08.12	상하이	자동차
2026 중국 자동차 시트 기술 혁신 서밋 포럼	2026.08.13	상하이	자동차
제9회 패턴 인식 및 인공지능 국제 학술대회(PRAI2026)	2026.08.14-2026.08.16	상하이	인공지능
제11회 국제 컴퓨팅 지능 및 응용 컨퍼런스(ICCIA2026)	2026.08.14-2026.08.16	칭다오	인공지능

트렌드 중국 창업

info@kicchina.org로 구독 신청하시면
매주 중국의 다양한 창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위챗 공식계정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위챗 공식계정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